

관현악곡으로 재탄생한 '임 행진곡' 첫 선

문화로 만나는 오월

3 시립예술단체 5·18 추모연주회

합창단, 15일 바흐의 '요한 수난곡' 등 들려줘
교향악단, 18일 '임 행진곡' 서곡·교성곡 초연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클레멘스 호락



김정미



강혜정



김세일



한경석



정국기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추모연주회를 준비했다.

광주시립합창단(지휘 임한규)은 제173회 정기연주회로 바흐의 오라토리오 '요한 수난곡(Johannes Passion BWV 245)'을 올린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은 상임지휘자 임한규의 지휘로 진행되며 소프라노 강혜정, 알토 김정미, 테너(복음사가) 김세일, 바리톤(예수) 한경석, 베이스(빌라도) 정국기 등이 출연한다. 또 오케스트라단 플레기움 무지콧 세율이 협연한다.

바흐가 작곡한 '요한 수난곡'은 복음사(테너)가 노래(레지타티보)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빌라도, 베드로, 예수, 여자

아이 등이 등장해 예수의 억울한 모함과 재판, 십자가상의 죽음을 보여주고 레지타티보 중간에 나오는 합창은 성난 군중이 되어 오페라처럼 극을 이끌어간다.

독창자들의 아리아와 코랄(합창)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감동스런 가사로 노래한다. 특히, 마지막 합창(편히 잠 드소서)과 끝 코랄(마지막 날에 전사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하소서)은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바흐의 요한 수난곡은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감동의 대서사시로 5·18 유족과 광주시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힐링, 더 나아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415-5203,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34회 정기연주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5·18 기념음악회 :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주제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이날 체코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시킨 서곡과 교성곡을 초연할 예정이다. 상임 지휘자 김홍재가 지휘하고, 빈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오보이스트 클레멘스 호락이 협연자로 나선다.

1부 첫 곡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블타바'이다. 스메타나는 당시 오스트리아 통치하에 있던 체코를 되찾기 위해 민족운동을 격려하면서 체코 민족 특유의 근대음악을 수립한 음악가이다.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이다. 경쾌하고 서정적인 곡으로 빈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 단원인 클레멘스 호락이 협연한다. 비엔나 출신으로 빈 국립 오페라 관현악단 연주자를 비롯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2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서곡과 교성곡, 그리고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한다.

광주시향은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바탕으로 교성곡 '민주(民主)'를 완성했다.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관현악곡으로 재탄생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선보이며 전남대합창단이 협연한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62-524-5086. /전문기자 ejf621@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차노희 산문집 '심포가 있는 두도시...' 펴 내

"한때는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남보다 북과 가까웠던 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나라. '헝가리 혁명'과 '프라하의 봄'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두 나라. 설악은 몇 가지 지식만으로도 두 나라는 광주와 비견할 만한 곳이었다."



의 나,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나, 작가로서의 나, 조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가는 두 도시를 떠나면서 여행자로서의 자유와 아픔을 동시에 느꼈다. 과거에서 현재를 찾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여행지에서 한국의 정치 변화를 느꼈다. 무엇보다 여행지에서 두 청년을 만난 일화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광주일보 신춘문에(2009) 출신 작가 차노희(사진)가 기행산문집 '심포가 있는 두 도시 이야기'(예코미디어)를 펴냈다. 광주대 시간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난 겨울 방학을 이용해 체코(프라하)와 헝가리(부다페스트)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과 체험을 묶어낸 것.

차 작가가 해외로 훌쩍 떠나게 된 것은 작품 활동을 하며 겪었던 촛불집회와 블랙리스트 파문 등을 계기로 작가로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작가는 "체코(프라하)와 헝가리(부다페스트)에 머무르면서 광주에서 일상을 보내듯 사색여 일을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며 "그곳의 길을 걸으며 내 안

"제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겪은 조상을 둔 이스라엘 청년 모어와 작년 여름 산타이고 스페인에서 만났던 부다페스트공과대학생인 데이비드. 모어는 법률가였고 여행 중이었다.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방황을 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ph.D 과정을 밟아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기를 바랐다. 아픔을 겪어낸 두 나라의 청년들, 둘은 상이한 성격을 지녔지만 그들 모두 일상의 '틈'을 느끼고 있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김재석 시인 목표·장흥 소재 시집 펴내

지난해 목표를 소재로 한 5권의 시집을 펴냈던 김재석(사진) 시인이 이번에는 3권의 작품집 '오거리가 가면 시가 운다', '조금새끼', '장흥'을 펴냈다.



지난 7년 전부터 근대문화유산답사 일 번지 목표에 대한 글쓰기를 시도해왔던 시인은 이번에는 목원동과 그 주변 일대에 관한 시, 그리고 장흥을 소재로 한 시들을 각각 작품집으로 묶어냈다.

이번 출간은 지난 2015년 '목포 다순 구미-보리마당' 시화전에 초대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목표에 관한 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스무 줄 안팎의 시라는 규정에 맞춰 짧으면서도 이미지화할 수 있게 창작을 했다.

"뱃고동 소리도/갈매기 울음소리도/임태하는데/한뫼한 것을// 햇빛도/ 달빛도/ 발빛도/ 자궁에서 태어난 것을// 유달산/ 삐죽새 울음소리/ 소쩍새 울음소리/ 귀를 행구고 자란 것을// 떠나고/ 돌아오는 배들에서/누구보다 먼저/살을 깨우친 것을"

표제시 '조금새끼'는 시인이 어린 시절 지냈던 목표(온금동·서산동)의 풍경이

한편 서정적인 이야기로 형상화됐다. '조금새끼'는 고기잡이를 떠났던 뱃사람들이 조금(말뚝)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큰 시간 때 바다에서 들어와 아내와 잠자리를 해 놓는 자식들을 일컫는다.

전체적으로 작품집은 근대적 감성이 녹아 있어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조금새끼'로 상징화된 근대의 목표 풍경이 철학적, 신화적으로 묘사돼 흥미롭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재석 시인은 시적 변화와 반성을 시도할 때가 됐다. 10여 권 가까운 시집을 '목포'와 '근대'에 몰입했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의 창작 작품을 보여줬으면 한다.

한편 김재석 시인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2008년 유심신인문학상(시조부문)을 수상했다. '다산', '강진시 문학파기념관'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건축, 치유예술이 되다'

건축물 영화 '콜롬버스' 상영 광주극장 16일 심포지엄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난다. 말하지 못할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계기가 되는 건 '건축'을 통해서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을의 건축물에 대해 남자에게 세세히 설명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관람객도 함께 다채로운 건축물을 감상하며 깊은 인상을 받게된다.

한국계 미국인인 코코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콜롬버스'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작은 도시 콜롬버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치유의 영화다. 작품의 배경이 되

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콜롬버스'는 '모더니즘의 메카'로 불리는 곳으로 영화 내내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물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다.

핀란드 출신 건축가 엘리엔 사리넨이 설계한 퍼스트 크리스천 교회, 그의 아들로 사리넨과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가 함께 완성한 밀러 하우스, 루브르 박물관 우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I.M.페이가 설계한 클레오 로저스 기념 도서관 등 숱한 건축물이 눈길을 붙잡는다.

건축가인 아버지와 불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려 하는 진 역의 한국계 배우 존 조와 건축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 케이시역을 맡은 헤일리 루리치드슨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물과 건축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는데, 마침 관련 심포지엄이 열린다.

'콜롬버스' 영화 상영과 함께하는 건축 심포지엄 '건축, 치유예술이 되다'가 16일 오후 7시2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

회(회장 박흥근)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와 이영미 조선대 초빙 객원 교수가 각각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 콜롬버스', '콜롬버스-일상, 소통, 치유의 건축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종원 조선대 이공대 교수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영 건축사가 토론을 함께 진행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